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40년간 하루도 잊은적 없는 장면 목탄으로 그렸죠”

‘하늘과 땅 사이-5’전, 5월 7일~24일 예술공간 집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은 생생한 현장 작품에”

<1>24년만에 5월 신작전 갖는 강영균 화백

작품 한점 한점의 포장이 벗겨져 눈 앞에 나타날 때마다 작은 탄성이 나왔다. 검은색 목탄으로 그려진 작품들은 강렬했다. 붉은 피가 고인 헬멧과 먹다남은 빵 한 조각,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남자, 총알이 박힌 우체통. 전시 서문을 쓴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의 “흑백 화면들은 신들린 듯 거친 대로 기억들이 세차게 출렁이고, 그 때 오월의 정황을 뚜렷하게 되살려냈다”는 말처럼 7점의 작품은 곧바로 우리를 ‘오월 그날’로 데려다 놓는다. ‘회화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강영균 화백

강영균 화백(80)이 ‘오월 그림’을 선보인다. 오는 5월7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강영균의 하늘과 땅 사이-5’를 통해서다. 광주를 그린 최초의 회화작품으로 꼽히는 1981년작 ‘하늘과 땅 사이-1’을 서울 신세계미술관에서 전시한 데 이어 지난 1995년 4번째 시리즈를 선보인 후 24년 만이다.
지난 주말, 전시가 열릴 ‘예술공간 집’(광주 동구 제봉로 158번길 11-5)에서 강화백을 만나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전시작들은 지난해 11월 5·18 기록관 주최로 열린 시민집담회에서 하룻동안 소개됐던 작품이다. 뒤늦게 인터넷에서 몇몇 작품을 본 문희영 ‘예술공간 집’ 관장은 진한 감동을 느꼈고 예술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 지난달 강 화백을 찾아가 전시를 청했다.
“기록관에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40여년전의 기억을 다시 뱉어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광주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두가 정도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말로 하는 대신 나는 ‘환경이’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싶었죠. 그 날 이후 40년간 마음에 담긴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가요. 한달여만에 무언가를 쏟아내듯 치열하게 그려간 작품입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20호 크기의 7점이다. 작품에는 5월19일부터 27일까지의 생생한 장면들이 담겼다. 그가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은 장면들이다.

1980년 5월22일 그는 전남도청으로 갔다. 아내가 준비한 김밥 한 박스와 삶은 달걀 한 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들어갔고 시민군들은 너도나도 김밥을 집어들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관 뚜껑을 열어둔 무명열사의 관이 보였다. 어디선가 스님의 목탁소리가 어렵듯이 들렸다.



‘박원준의 피’
‘남 서역, 아시아까지 항쟁했던 시민군(박원준)의 피(YWCA를 위한 헌정물)에는 다 먹지 못한 빵 한 조각과, 널부러져있는 헬멧에 묻힌 피가 그려 있습니다.’

계엄군이 총격이 있던 27일 아침, YWCA를 찾아갔다. 2층 입구 창문,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시민군(박원준)의 자리에는 덩그러니 헬멧이 놓여 있었다. 현관 앞 계단엔 붉은 피가 선연했다. 그날 아침 중장로 광주우체국 앞 우체통은 수많은 총탄 흔적으로 처연했다. 자택이 있던 신우아파트에서 리어카에 시체를 끌고 가는 두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이 장면들이 모두 작품에 담겼다.

“이번에 그린 장면들은 그날 이후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모습들이죠.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헬멧을 보자 마음이 울컥했는데 그 옆에 다 먹지도 못한 빵 한 조각이 놓여 있더군요.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죠. 광주우체국 앞 우체통에 박힌 총탄 자국들은 광주사람 마음에 박힌 총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흔적 지우기’입니다. 그 우체통은 금방 사라져버렸죠.”

전시작은 모두 검은 목탄으로 그려졌고 헬멧에 담긴 피와 YWCA 계단앞의 작은 핏자국만 붉은색으로 그렸다. 강화백은 “그 때 광주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솟덩이처럼 까맣게 타 버렸고, 그 마음들을 담는데 목탄이 좋은 것 같았다”며 “오래전부터 목탄을 써왔고 요즘 먹 작업 등 단색 작업을 많이 하는데다 품고 있는 생각을 꾸미지 않고 즉흥적으로 쏟아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부터는 광주에 없었다. ‘광주’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로 갔고 한국일보 이성부 기자, 중앙일보 홍사중 기자 등을 만났다. 최성중 작가의 작업실에서 사람들을 만나 또 소식을 알렸다.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



‘선혈이 남자한 YWCA’

고 다시 광주로 내려온 건 22일이다. 전시작 중 눈두렁에 처박힌 시내 버스는 순창에서 담양으로 넘어가는 길에서 목격한 것이다.

“광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사람으로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었죠. 현장은 너무 참담했고 마음은 비통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약하고 예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괴로웠죠. 나약함을 스스로 위로하고 역사에 작은 발언이라도 하자, 그게 환경이랄까 할일이다 마음 먹고 그린 게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현장을 보며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작품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80년 그리기 시작해 81년 마무리했죠.”

강화백의 머릿속에, 심장에 박힌 잔상 중 이번에 표현하지 못한 장면이 있다. 언젠가는 꼭 그려보고 싶은 모습이다. 금남로 장갑차 위에 무표정한 모습으로 서 있던 ‘시민군의 모습’은 그가 만난 가장 멋진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또 1979년작 ‘장군의 초상’도 처음 공개되며 ‘하늘과 땅 사이-1’ 제작을 위한 드로잉도 선보인다.

강화백은 ‘오월 광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하늘과 땅 사이’ 시리즈를 이태호 교수와 함께 책으로 엮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당시 열렸던 안티비엔날레서 선보인 만장 작업인 네번째 시리즈는 ‘한국미술에서 가장 긴 걸치미술’이라 불렀고 신경림, 이해찬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했었다.

한편 ‘하늘과 땅 사이-2’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용미술관에서 열리는 40주년 기념전 ‘불후’전에 전시중이며 시리즈 1번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진행하는 40주년 특별전에 걸릴 예정이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산책’

5월 중 재개관...야외공간 중심 투어 계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의 자연 풍경과 공간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문화 탐방 ‘ACC 산책’을 운영한다.

ACC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당초 5월 5일까지 휴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5월 재개관을 하면 야외공간을 중심으로 투어를 시작할 계획이다.

ACC 산책은 평일 기본코스(무료)와 주말 특별코스(유료)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ACC 건축물과 공간을 해설사와 거닐며 꽃과 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 민주평화교류원 역 역사현장의 기억을 간직한 회화나무, 어린이문화원 옥상정원, 잔디밭인 하늘마당 등에서 조경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다.

특히 주말 특별코스는 유료로 1인, 2인, 3-4인을 기준으로 1만원 꾸러미, 2만원 꾸러미, 3만원 꾸러미 등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만원권(1인) 참여자에게 주먹밥 도시락 1팩을, 2만원권(2인) 참여자에게 주먹밥 도시락 1팩과 돗자리



투어 참가자에게 증정하는 선물꾸러미.

1개를, 3만원권(3-4인) 참여자에게 주먹밥 도시락 2팩과 돗자리 1개를 각각 제공한다.

평일과 주말 참가자에게는 꽃과 나무를 배경으로 제작한 스티커를 나눠주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ACC 산책은 2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1회당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한정한다. 예약은 AC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여성가족재단, ‘여신(女新) 나르샤’ 작가 선정
정선영·박춘자·노미란 작가, 6월부터 순차적 전시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안경주)은 여성 신진작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여성문화예술 확대를 위해 마련된 ‘여신(女新) 나르샤’ 공모전에서 신진작가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정선영(서양화), 박춘자(한국화), 노미란(섬유공예)작가 등 3명이다. ‘The Birth(탄생)’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정 작가는 선명한 색채와 밀도 있는 구성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박 작가는 남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북중산수와 남동산수의 장리를 오가며 자신의 인생을 한 폭의 자연에 담아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어냈다. 노 작가는 모진 풍파에도 특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지

않는 야생화의 모습을 섬세하고 수려한 자수로 선보였고 이를 통해 우리네 어머니와 여성의 삶을 표현했다.

‘여신(女新)’과 날아오르다의 순우리말 ‘나르샤’를 합친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개인전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 여성 신진작가를 발굴,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선정된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전시 소식은 재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시(유튜브, 블로그 등)도 함께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eltone hearing aids. Includes text: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Advertisement for 'DASAN PRIMMO' clothing. Includes text: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